

# 지역 정주환경 인식이 청년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 김해시 청년의 지역사회유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The Impact of Perceived Regional Settlement Environment on Youth Settlement Consciousness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Community Ties among Youth in Gimhae City

오 정 민\*\*·이 상 협\*\*\*

Jeong Min Oh·Sang Hyeb Lee

### ■ 목 차 ■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설계
- IV. 분석결과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청년의 일시적 유입을 넘어 지속 정주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현재의 거주 만족과 미래의 지속 거주 의향을 포괄하는 정주의식을 종속변수로, 사회·문화, 경제, 안전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정주환경 인식을 독립변수로, 지역사회유대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구조방정식 모델링 분석을 수행하였다. 김해시 19개 읍·면·동 할당표집으로 선정된 청년(20~30대) 2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회·문화, 경제, 안전 인식 순으로 정주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지역사회와 강한 유대감을 형성한 청년일수록 경제적 여건 인식이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는 지역사회유대가 경제적 요인의 제약을 심리적으로 완충하는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이를 토대로

\* 「2024 지역정주 가치정향 모니터링」 데이터를 본 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인제대학교 글로벌대학사업본부에 감사드립니다.

\*\* 제1저자, 인제대학교 연구교수

\*\*\* 교신저자, 인제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부교수

논문 접수일: 2025. 11. 6. 심사기간: 2025. 11. 6. ~ 2025. 12. 1. 게재확정일: 2025. 12. 1.

청년 정주 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적 근거와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청년, 정주의식, 정주환경, 지역사회유대, 조절효과

This study explored factors enabling sustainable settlement of young adults beyond temporary influx to address regional decline caused by population decrease.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 examined settlement consciousness? encompassing current residential satisfaction and future settlement intention? as the dependent variable, perceived settlement environment across socio-cultural, economic, and safety dimensions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community ties as a moderator. A survey of 224 young adults (ages 20-39) selected through quota sampling across 19 districts in Gimhae City revealed that socio-cultural, economic, and safety perceptions significantly influenced settlement consciousness in that order. Notably, among young adults with strong community ties, economic condition perception did not significantly influence settlement consciousness, indicating that community attachment functions as a psychological buffer that moderates the impact of economic constraints. This moderating effect indicates that fostering community bonds can mitigate the limiting impact of economic factors on youth retention.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while economic conditions matter, socio-cultural factors and community integration play more decisive roles in youth settlement decisions.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and theoretical insights for developing youth settlement policie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building social connections alongside improving economic opportunities. The results suggest that regional retention strategies should prioritize community engagement programs and socio-cultur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to strengthen young adults' psychological attachment to their regions.

□ Keywords: Youth, Settlement Consciousness, Settlement Environment, Community Ties, Moderating Effect

## I. 서론

무엇이 청년을 지역에 머물게 하는가?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청년층의 지역 정주는 지방도시의 생존을 좌우하는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청년층 유출이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었다(최예슬, 2022). 이는 지방도시의 인구감소가 단순한 출산을 저하보다는 사회적 요인, 특히 청년층의 인구 유출에 크게 기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민보경, 2024). 다시 말해 지역의 인구문제가 단순히 자연적 감소가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의해 매개되는 구조적 현상인 것이다. 특히 청년층은 지역 활력과 세대 재생산을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라는 점에서(강수진·서원석, 2025), 청년의 정주요인 탐색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의제라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동일한 지역 환경에서도 청년들의 선택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수도권 집중이 심화된 상황에서도 비수도권으로 이동하거나 지역에 머무는 청년들이 존재한다는 점은(하수정 외, 2022), 청년의 정주 결정에 물리적 환경 이상의 요인이 작용함을 시사한다. 실제로 지역에 정착한 청년들을 분석한 결과, 일자리 같은 경제 요인뿐 아니라 생활환경, 지역 공동체와의 연결감 등 복합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경기본부, 2025. 1. 23.). 정주의식은 이러한 다차원적 요인들이 통합되어 형성되며, 정착 행동과 지역사회 참여를 예측하는 핵심 변인이다(강영웅 외, 2020). 따라서 청년 정주의식 형성 요인을 규명하는 것은 효과적인 정주 정책 수립의 전제가 된다.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 균형발전 및 청년의 지역 정주를 위해 창업 지원, 일자리 매칭, 주거비 보조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5. 9. 22.). 그러나 대부분 외부 청년의 유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에 비해 기존 거주 청년의 지속적 정주를 지원하는 정책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다수의 사업이 단기적·물질적 인센티브 중심으로 설계되어, 사업 종료 이후 지속성이 약화되는 한계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조선일보, 2025. 5. 5.). 이는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청년의 지속 정주를 담보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청년이 지역에 머물기 위해서는 물질적 조건뿐 아니라 ‘지역에 머물고 싶다’라는 심리적 애착과 소속감이 형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년을 정책 수혜 대상으로만 보는 시혜적 접근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왜 누군가는 지역에 머물고, 또 누군가는 지역을 떠나는가’, 즉 정주의식과 정주 결정요인에 대한 사회과학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생활만

죽도, 고용 기회, 교육·문화 인프라 등 객관적인 정주환경 요인을 중심으로 정주의식을 설명해 왔다(김화연·이대웅, 2022; 이창관·박선주, 2024; 최일진·남황우, 2015).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주민 간 사회적 관계망이나 공동체 의식과 같은 사회적 유대감의 작동 방식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서 지역 사회유대에 주목하고(Putnam, 1993), 정주민족 및 정주의사결정 모형(Amerigo & Aragones, 1997; An, Aoki & Suzuki, 2021)을 이론적 틀로 삼아 청년의 정주 메커니즘을 입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구별된다. 첫째, 개인적 차원이 아닌 지역적 차원의 정주환경 요인을 분석한다. 둘째, 객관적 지표가 아닌 청년의 주관적 인식을 측정한다. 셋째, 사회·문화, 경제, 안전 영역의 정주환경 인식이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역사회유대의 조절효과를 검증한다. 이를 통해 동일한 정주환경에서도 사회적 유대 수준에 따라 개인의 정주의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정주 문제를 일자리·주거·지원금 등 경제적 요인으로 환원하는 기존 접근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한다.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은 지역 정착을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선택'으로 전제함으로써, 정주 과정에 내재한 사회적 관계, 감정, 애착과 같은 비물질적 요소를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주의적 담론은 청년이 지역을 '삶의 자리'로 경험하고 재구성하는 의미세계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 본 연구는 청년이 지역과 맺는 관계적·심리적 요인에 주목함으로써 정주의식 형성 메커니즘을 입체적으로 규명하고, 정주를 단순한 잔류(residence)가 아닌 의미·감정·관계가 함께 구성되는 사회적 과정으로 재해석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지인 경상남도 김해시는 평균 연령 42.08세, 청년인구 비율 21.4%의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 구조를 보이고 있어(강길주, 2025) 청년 정주 연구에 적합하다. 본 연구는 김해시 청년의 정주의식 형성 요인을 규명하고, 정주환경 인식 개선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통합한 청년 정주 정책 수립의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정주환경 인식과 정주의식

정주 결정은 단순한 주거 이동이 아니라 개인의 현재 생활 여건과 미래 전망 및 기대를 포함한 복합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Hofstede et al., 2023; Morris 2018; Li et al., 2024).

정주(settlement)는 사전적으로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오래 사는 것’으로(국립국어원, 2025), 물리적 거주를 넘어 한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린 생활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거주 지역이 생활의 필요와 관심을 충족할 때 계속 거주하려는 태도를 갖게 되며(이희창 외, 2004), 이를 위해서는 삶에 필요한 욕구 충족과 잠재력 실현을 가능케 하는 지역 단위의 환경적 조건이 확보되어야 한다(이미애·이승중, 2016). 이에 본 연구는 정주환경(settlement environment)을 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지속 거주를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사회적·제도적 조건의 총체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에 대응하여 정주환경 인식은 지역의 정주 조건에 대한 청년의 주관적 평가를 뜻하며, 본 연구는 객관적 환경 자체가 아닌 청년의 주관적 인식을 측정 대상으로 삼는다.

정주의식(settlement consciousness)은 정주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심리적 태도로서, 지역이 가진 물리적·비물리적 자산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과 심리적 만족감을 포괄한다(이희창 외, 2004). 이는 특정 장소에서 시간과 경험이 축적될 때 형성되는 장소애착(place attachment)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이상호·오정민, 2016; Lewicka, 2011; Tuan, 1977). 특히 거주 지역은 강한 정서적 유대가 형성되는 공간으로(Goudy, 1977; Hernandez et al., 2007), ‘우리 동네’, ‘내 고향’ 등의 언어를 통해 안정감, 소속감, 정체성이 표출되기도 한다(최열·임하경, 2005).

이처럼 정주의식은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는 다차원적 구성개념이다. 심리적 차원인 친밀도와 소속감, 애착심(강영웅 외, 2020; 이희창 외, 2004; Chen et al., 2019; Kale, 2019), 그리고 행태적 차원인 지속 거주 의지(김화연·이대웅, 2022; 최일진·남향우, 2015)가 함께 충족될 때 성립한다. 애착만 있고 거주의향이 없거나, 반대로 거주의향만 있고 애착이 없다면 완성된 정주의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강영웅 외, 2020). 이에 본 연구는 정주의식을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만족감을 기반으로 현재 거주 지역에 계속 머무르고자 하는 태도’로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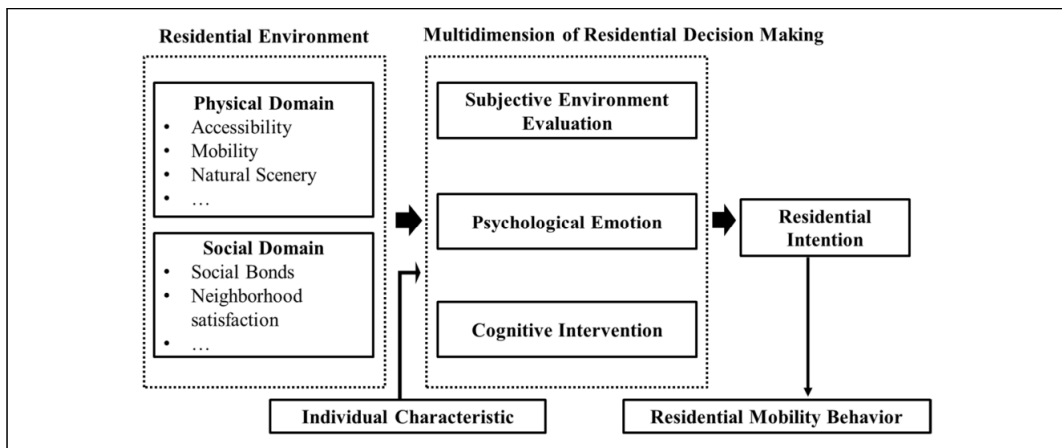
한편, 이동에 치우친 기존 정주 연구의 한계도 지적되어 왔다. Haas(2021)는 주거 이동 연구가 이탈과 유입의 요인분석에 치중하면서, 정주(머무름, immobility)를 아우르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Carling(2024) 역시 이주(migration)와 비이주(non-migration)를 분리된 현상으로만 보는 접근을 넘어 복합적 동기와 맥락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정주를 단순한 ‘비이동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머무르려는 심리적 지향’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주의식은 이러한 능동적 선택의 핵심 심리 변수로, 결과(이동)만을 분석하는 기존 연구와 달리 정주행동의 심리적 기제를 포착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또한 정주의식은 지역 현안에 대한 참여와 협력의 기반이 되어(강영웅 외, 2020; 김화연·이대웅, 2022; 이미애·이승중, 2016; 이지은 외, 2020), 단순한 거주 유지를 넘어 지역사회의 활력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한다. 따라서 정주의식은 정책 개입의 주요 대상이자 지속가능한 지역 인구 유지를 위한 전략적 출발점이다.

## 2. 정주 의사결정 요인

정주(settlement) 관련 초기 연구들은 주거 이동을 주로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임금 격차와 고용 기회 등이 정주 혹은 이주의 핵심 영향 요인이며(Greenwood, 1975; Mincer, 1978), 특히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은 지역 간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었다(Hatton & Williamson, 1998; Harris & Todaro, 1970). 이후 연구들은 개인의 경제적 조건을 넘어 지역의 환경적·사회적 특성으로 관심을 확장하였는데, 이는 거주지 선택이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질과 범위에 의해 결정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강영웅 외, 2020; 이미애·이승중, 2016; 전영옥·박세진, 2024; 최일진·남황우, 2015).

본 연구는 정주 의사결정에 관한 이론적 논의로서 Tiebout(1956)과 An, Aoki, & Suzuki(2021)의 연구에 주목한다. Tiebout(1956)은 주민들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발로 투표하는(vote with their feet)’ 방식으로 정주지를 선택한다고 설명한다. 즉,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공공서비스와 세율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이동하며, 그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 정주의식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한편, An, Aoki, & Suzuki(2021)는 Amerigo & Aragones(1997)의 정주 만족 모형을 수정·보완하여 정주 의사결정의 통합모형을 제시했다(〈그림 1〉 참조). 이 모형은 물리적·사회적 환경이 개인의 주관적 평가와 심리적 감정, 인지적 개입을 거쳐 정주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즉, 개인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특정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주의식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그림 1〉 정주 의사결정 통합모형



출처: An, Aoki, & Suzuki(2021: 5)

이러한 논의는 공통적으로 정주환경의 특성과 이에 대한 주민의 주관적 만족도가 결합하여 정주의식을 형성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Tiebout(1956)의 공공서비스와 제도적 환경, An, Aoki, & Suzuki(2021)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은 실제로 여러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은 주민의 정주 결정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국내 연구들은 정주환경을 사회·문화, 경제, 안전의 세 영역으로 주로 구분해 왔다(강영웅 외, 2020; 이미애·이승중, 2016; 최일진·남황우, 2015). 사회·문화 영역은 교육·문화·복지·의료 등 사회적 삶의 질 관련 요소를, 경제 영역은 일자리와 소득 등 경제적 기반을, 안전 영역은 범죄와 재난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한다.

먼저 사회문화 인식의 경우, 그 영향력은 주민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욕구충족 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교육·복지 여건의 영향이 크며(강영웅 외, 2020), 청년의 경우 타지역 이주자는 보건·복지 여건을, 출신지 거주자는 자연환경 인프라를 더 중요하게 인식한다(김화연·이대웅, 2022). 연령대별로도 청년층은 교육 여건, 중·장년층은 보건·복지 분야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이지은·이정은, 2020). 공원, 녹지공간, 거리 청결도 등 일상적 생활환경도 정주의식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이미애·이승중, 2016).

이러한 차별적 영향은 경제 인식에서도 확인된다. 지역의 경제적 조건이 불충분할 경우 타지역 이주 가능성이 높아지며(이희창 외, 2004), 지역 산업구조에 따라 중요하게 인식되는 경제 요인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농축산업 중심 지역에서는 농축산 정책 만족도가 정주의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최일진·남황우, 2015).

안전 인식의 경우, 자연재해, 전염병, 범죄 등의 위험 요인은 주민 일상에 불확실성을 높이며(최재국·문국경, 2021), 안전 인식이 높을수록 지역만족도와 정주의식이 강화된다(이창관·박선주, 2024; 김상민·이성원, 2025). 특히 위험 인식이 높을수록 사회적 신뢰와 정주의식 간의 긍정적 관계가 약화된다는 결과는(최재국·문국경, 2021), 안전 불만이 지역사회 신뢰와 정서적 유대까지 저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연구들은 정주환경의 각 영역이 정주의식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력이 주민 특성과 지역 맥락에 따라 달라짐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정주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영역의 상대적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접근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정주환경은 객관적 지표의 집합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실제로는 특정 시대와 정책담론의 시각이 반영된 구성적 개념이다. 한국의 지방정책은 정주환경을 주로 일자리, 주거, 안전 등 생계 기반 중심으로 정의해 왔으며, 이는 청년을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움직이는 주체'로 간주하는 정책 관점을 반영한다. 반면, 청년세대는 지역을 생계의 터전을 넘어 관계 형성, 자아실현, 문화적 경험이 결합된 '삶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정주환경 요인은 단순한 환경 변수의 나열이 아니라, 청년정책

이 정주를 어떻게 구성해 왔는지에 대한 담론적 맥락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정주환경 인식의 결과를 해석하고, 청년 정주를 둘러싼 사회적 의미구조를 분석하는 데 기여한다.

### 3. 지역사회유대

정주의식 형성에는 환경적 조건에 대한 인식과 함께 주민이 지역사회와 맺는 사회적 관계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최근 연구들은 정주의식을 지역성 기반의 정서적 애착으로 이해하며, 주민 간 교류와 사회적 연대 등 사회자본의 영향력에 주목한다(강영웅 외, 2020; 이희창 외, 2004; 엄창욱 외, 2018). Putnam(1993)에 따르면, 사회자본은 신뢰, 규범,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행동을 촉진하고 협력의 효율성을 높이며, 이는 곧 지역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사회자본이 단순히 참여를 촉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이 환경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방식 자체를 조절한다는 점이다. 즉, 동일한 정주환경이라도 사회적 관계망이 풍부한 주민은 지역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그 결과 정주의식이 강화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사회자본 중에서도 본 연구는 정주의식의 핵심 요소인 지속거주의사와 정서적 애착을 설명할 수 있는 지역사회유대에 주목한다.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네트워크는 주민 간 상호작용과 관계망을 의미하는데(Putnam, 1993), 지역사회유대는 이러한 네트워크가 개인 수준에서 심리적 결속으로 형성된 것이다. 즉, 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 및 조직과 맺는 정서적 연결감, 교류, 소속감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지역사회유대가 정주의식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은 Hirschman(1972)의 충성심(loyalty)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Hirschman(1972)은 불만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반응기제로서 이탈(exit), 항의(voice), 충성심을 제시하였는데, 충성심은 조직을 떠나는 것을 막는 넓은 의미의 유대(ties)에 해당한다. 이를 지역 차원으로 확대하면, 지역사회유대가 높은 주민은 충성심을 바탕으로 지역을 떠나지 않고 머물게 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개념적으로 지역사회유대는 Stamm & Fortini-Campbell(1983)과 Stamm(1985)에 의해 공간적·인지적·감정적·커뮤니케이션적 유대의 네 가지 차원으로 체계화되었다. 이는 거주 지역에 대한 소속감, 애착, 이웃과의 상호영향 의식을 포괄하는 공동체 의식과 유사한 개념으로(McMillan & Chavis, 1986; 강대선·류기형, 2007), 주민들이 지역과 맺는 다차원적 관계를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사회유대를 지역민이 거주 지역과 연결되어 있다고 인식하거나 이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경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연구에 따르면, 지역사회유대가 높은 주민은 투표나 공공문제에 적극 참여하며(Davidson & Cotte, 1989),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제공하려는 성향이 높다(곽현근·유현숙, 2005). 또한 이들은 이웃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고(Goudy, 1977; James, 2004), 환경보호 및 자원봉사 등 지역문제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된다(오미영, 2008; 정진경 외, 2022).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지역사회유대가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이탈을 억제하는 핵심 요인임을 입증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지역사회유대가 정주의식에 미치는 직접효과(direct effect)만을 검증하는 데 집중해 왔다(강대선·류기형, 2007; 엄창옥 외, 2018; 오미영, 2008; 이희창 외, 2004). 최근 이러한 접근이 지역의 환경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향적 논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최재국·문국경, 2021). 실제 정주 결정은 환경 인식과 사회적 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정주환경 만족도가 다소 낮더라도 지역사회유대가 강하면 주민들은 지역을 떠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정주환경 만족도가 높더라도 지역사회유대가 약하면 더 나은 기회가 있을 때 쉽게 이주할 수 있다. 즉, 지역사회유대는 환경적 한계를 보완하거나 환경적 이점을 무력화할 수 있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는 아직 이론적 추론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영아·김윤지(2022)가 공공서비스와 거주기간의 관계에서 지역사회유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바 있으나, 관측변수 간 상호작용항을 활용한 분석으로 지역사회유대의 다차원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사회유대를 다차원 잠재변수로 구성하고, 정주환경 인식과 정주의식 간 관계에서 그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정주행동의 사회적·심리적 매커니즘을 보다 정교하게 규명하고자 한다.

### Ⅲ. 연구설계

#### 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본 연구는 Tiebout(1956)과 An, Aoki, & Suzuki(2021)의 이론적 논의를 종합하여, 정주환경에 대한 청년 인식을 사회·문화, 경제, 안전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Putnam(1993)의 사회자본 이론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유대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 절차는 먼저 각각의 정주환경 인식이 정주의식에 미치는 직접 영향을 분석한 후, 지역사회유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분석방법은 구조방정식모델링(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연구의 측정도구, 즉 설문지는 측정하고자 의도한 개념을 완전히 측정하기 어려워 필연적으로 측정오차를 수반하는데, 구조방정식모델링은 복수의 관측변수를 잠재변수로 통합함으로써 측정오차를 통제하고 다중 경로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배병렬, 2014: 21). 이에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연구모형은 <그림 2>와 같다.

H1. 정주환경 인식은 정주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사회·문화 인식은 정주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경제 인식은 정주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안전 인식은 정주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정주환경의 차원별 속성 차이에 주목하여 조절효과의 방향을 예측하였다. 사회·문화 환경은 문화공간이나 복지시설처럼 이웃과 함께 이용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관계 매개적 속성을 지닌다(정진경 외, 2022; James, 2004). Putnam(1993)은 사회적 관계망이 풍부한 경우 동일한 지역 환경이라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지역사회유대가 사회·문화적 환경 요인의 긍정적 영향을 강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경제 및 안전 조건은 일자리나 범죄율처럼 개인의 생존과 안전에 관련된 도구적 속성을 지니며, 불충분할 경우 이주 가능성을 높인다(이희창 외, 2004; 최재국·문국경, 2021). Hirschman(1972)에 따르면 강한 지역사회유대는 이러한 환경적 한계를 보완하여 이탈을 억제할 수 있다. 즉, 경제 및 안전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강한 지역사회유대가 있다면 정주의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완충되어, 정주환경 인식과 정주의식 간의 관계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지역사회유대의 조절효과는 정주환경의 속성에 따라 영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사회·문화 영역에서는 정주환경과 정주의식 간 정적 관계를 강화하는 반면, 경제 및 안전 영역에서는 완충효과를 통해 그 관계를 약화시킬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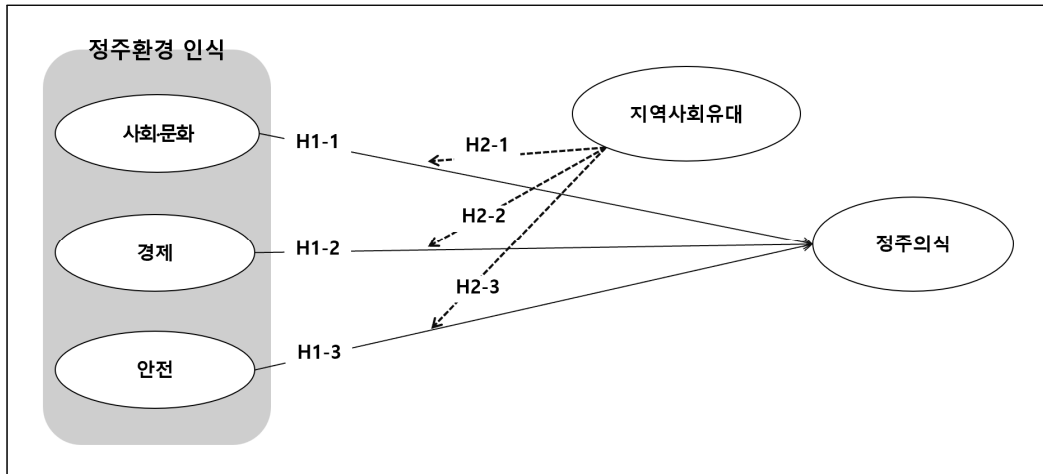
H2. 지역사회유대는 정주환경 인식과 정주의식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H2-1. 지역사회유대가 높을수록 사회·문화 인식과 정주의식 간의 관계는 강화될 것이다.

H2-2. 지역사회유대가 높을수록 경제 인식과 정주의식 간의 관계는 약화될 것이다.

H2-3. 지역사회유대가 높을수록 안전 인식과 정주의식 간의 관계는 약화될 것이다.

〈그림 2〉 연구모형



## 2. 측정도구

독립변수인 정주환경 인식은 사회·문화, 경제, 안전의 세 차원에 대한 청년의 주관적 인식을 측정하였다. 사회·문화 인식은 여가·취미, 교육, 기후·환경, 문화·예술, 의료·보건 등 지역의 인프라와 환경 조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강영웅 외, 2020; 김화연·이대웅, 2022; 이지은·이경은, 2020). 경제 인식은 경력 형성과 경제적 자립의 초기 단계에 있는 청년세대가 현재의 일자리 여건과 불확실성이 높은 지역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다는 특성을 반영하여, 일자리 여건 및 지역경제 전망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측정하였다(이희창 외, 2004; 최일진·남황우, 2015; Hofstede et al., 2023; Li et al., 2024). 안전 인식은 전반적인 안전 수준과 범죄로부터의 보호 정도를 측정하였다(이창관·박선주, 2024; 최재국·문국경, 2021).

종속변수인 정주의식은 현재 거주 만족 및 지속 거주 의사,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을 포괄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강영웅 외, 2020; 이희창 외, 2004). 조절변수인 지역사회유대는 지역 행사 및 모임 참여,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 김해시민이라는 자부심 등 세 항목으로 개인이 거주 지역과 연결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McMillan & Chavis, 1986; Stamm, 1985; Stamm & Fortini-Campbell, 1983).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경남 김해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층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표본추출은 2024년 12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를 토대로, 김해시 관내 19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제곱근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여 지역별 표본을 할당하였다. 이는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도 일정 수준의 표본을 확보하고, 인구가 많은 지역의 과도한 표본 배정을 조정하여 지역 간 비교 가능성과 통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각 지역 내에서 연령별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으며, 성별은 각각 50%로 균등 배분하였다.

훈련된 조사원이 2025년 1월 24일부터 2월 5일까지 직접 대면조사(face-to-face interview)로 진행하였다. 결측치를 제외한 최종 유효표본 224부를 대상으로 SPSS 29와 AMOS 29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 IV. 분석결과

### 1. 응답자의 특성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표 1〉 참조), 여성과 남성이 각각 48.2%와 51.8%, 20대와 30대가 47.3%와 52.7%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혼인 상태는 미혼이 71.0%, 기혼이 26.8%이며, 응답자의 23.7%가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의 경우, 도농복합도시인 김해시 내에서 동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세대가 81.7%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다. 가구소득은 200~400만원 미만(40.6%), 400~600만원 미만(29.0%), 600만원 이상(19.2%), 200만원 이하(10.7%) 순으로 분포하였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여성	108	48.2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4	10.7
	남성	116	51.8		200~400만원 미만	91	40.6
연령	20~29세	106	47.3		400~600만원 미만	65	29.0
	30~39세	118	52.7		600만원 이상	43	19.2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혼인 상태	미혼	159	71.0	학력	중학교 이하	2	0.9
	기혼	60	26.8		고등학교	37	16.5
	이혼 및 사별	5	2.2		전문대학	49	21.9
자녀	있음	53	23.7		4년제 대학 이상	136	60.7
	없음	171	76.3	직업	자영업자	13	5.8
거주 지역	읍·면지역	41	18.3		특수고용직	5	2.2
	동지역	183	81.7		임금근로자	147	65.6
사회 경제 지위 인식	하(下)	46	20.5		취업 준비(구직 중)	21	9.4
	중하(中下)	117	52.2		학생	25	11.2
	중상(中上)	57	25.4		전업주부	6	2.7
	상(上)	4	1.8		무직 및 기타	7	3.1
전체		224	100	전체		224	100

한편, 응답자의 72.7%가 스스로를 ‘중하’ 수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속한다고 응답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년들이 거주 지역과 타 지역 간의 격차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이주 의 사결정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며(김상민·이성원, 2025), 특히 일자리 기회, 문화·여가 인프라, 교육 환경 등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지역 이탈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된다(강수진·서원석, 2025). 이러한 맥락에서 응답자 대다수가 중하 계층으로 자신을 인식한다는 점은, 김해지역과 수도권 또는 인근 대도시 간 격차를 체감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향후 연구는 이러한 인지된 격차 및 사회경제적 자각이 청년층 정주의식에 어떠한 구조적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정밀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 2.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전체 21개 측정문항의 내재된 요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FA)<sup>1)</sup>을 실시하였다(〈표 2〉 참조). 분석 결과, KMO 값은 0.904,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chi^2=3419.345$ ,  $p<.001$ ), 모든 요인적재량이 0.6 이상으로 나타나 분석 결과의 타

1) 탐색적 요인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은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잠재적 요인 구조를 탐색하는 분석기법으로, 사전에 설정된 이론적 구조 없이 데이터로부터 요인을 도출한다(신건권, 2016: 59).

당성이 확보되었다. 도출된 5개 요인은 측정문항의 내용에 따라 각각 사회·문화 인식, 경제 인식, 안전 인식, 정주의식, 지역사회유대로 명명하였다. 이는 연구설계 단계에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정한 5개 차원과 일치하는 결과로, 본 연구의 측정도구가 구성 타당도 (construct validity)를 확보하였음을 의미한다.

〈표 2〉 탐색적 요인분석

측정문항(21개)	회전된 성분 행렬				
	I	II	III	IV	V
지역 일자리 지속가능성	.881	.184	.187	.037	.038
지역 일자리 여건 전망	.861	.264	.135	.062	.041
지역 경제 지속가능성	.853	.115	.208	.100	.003
지역 경제 여건 전망	.848	.214	.181	.076	.028
지역 내 원하는 일자리 기회	.836	.190	.180	.107	.093
지역 내 일자리 충분	.758	.230	.208	.008	.096
지역 내 문화·예술 향유 기회	.221	.765	.026	.172	.046
지역 내 의료·보건 서비스 제공	.252	.732	.257	-.110	.145
지역 내 교육 여건	.125	.706	.364	.100	-.021
지역 내 기후·환경 대응	.324	.697	.243	-.055	.099
지역 내 여가·취미 여건	.257	.674	-.075	.331	.088
지역 내 배울 수 있는 기회	.034	.668	.407	.116	.060
우리 지역에서 계속 거주 기대(다음 세대)	.364	.194	.768	.149	.003
우리 지역에서 계속 거주 기대(1~2년)	.112	.312	.728	.212	.122
우리 지역에서 계속 거주	.376	.260	.708	.076	.017
우리 지역에서 살기 좋음	.195	.288	.630	.487	.077
지역 내 전반적 안전 수준	.185	.086	.178	.885	.105
지역 내 범죄로부터 보호 수준	.089	.150	.241	.876	.128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	.039	.064	.046	.124	.846
지역 행사 및 모임 참여	.037	.160	-.100	-.028	.829
김해 시민이라는 자부심	.190	.144	.358	.229	.690
고유값	5.548	4.005	2.913	2.195	2.070
설명 분산(%)	24.120	17.412	12.664	9.543	8.999
누적 분산(%)	24.120	41.531	54.196	63.718	72.737
KMO(Kaiser-Meyer-Olkin)	.904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chi^2=3419.345(df=210, p<.001)$				

추출방식: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회전방식: 배리맥스(Varimax)

한편, 확인적 요인분석(CFA)<sup>2)</sup> 결과, 사회·문화 인식에서 한 개의 측정문항을 제거한 이후의 적합도가  $\chi^2=192.281(df=114, p<.001)$ , CMIN/df=1.687, CFI=0.973, NFI=0.937, IFI=0.973, TLI=0.964, RMSEA=0.055로 도출되었으며, 표준화회귀계수( $\lambda$ )가 0.619~0.932로 나타남으로써 측정모형의 적합도 기준을 충족했다(신건권, 2016: 81).

구성개념신뢰도(CR $\geq$ 0.70)는 0.805~0.927, 평균분산추출값(AVE $\geq$ 0.50)도 0.597~0.829로 나타나 집중타당성도 확보되었다(Hair et al., 2010). 내적일관성을 평가하는 신뢰계수(cronbach's alpha)는 0.871~0.935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각 잠재요인의 상관계수 제공인 결정계수( $r^2$ )값이 평균분산추출(AVE)보다 낮게 나타나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 역시 충족하였다(〈표 3〉, 〈표 4〉 참조).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구분	측정항목	수렴타당도		구성개념 타당도		$\alpha$
		$\lambda$	C.R.	CR	AVE	
사회 문화 인식	지역 내 여가·취미 여건	.651	-	.805	.597	.871
	지역 내 교육 여건	.704	10.873***			
	지역 내 기후·환경 대응	.675	10.331***			
	지역 내 문화·예술 향유 기회	.780	12.123***			
	지역 내 의료·보건 서비스 제공	.757	11.568***			
경제 인식	지역 내 일자리 충분	.619	10.729***	.916	.734	.935
	지역 내 원하는 일자리 기회	.786	16.395***			
	지역 경제 여건 전망	.828	17.722***			
	지역 경제 지속가능성	.873	20.201***			
	지역 일자리 여건 전망	.917	-			
	지역 일자리 지속가능성	.932	23.900***			
안전 인식	전반적 지역 안전	.931	14.588***	.927	.829	.903
	지역 내 범죄로부터 보호 수준	.879	-			
정주 의식	우리 지역에서 살기 좋음	.686	-	.865	.659	.871
	우리 지역에서 계속 거주	.706	11.532***			
	우리 지역에서 계속 거주 기대(1~2년)	.872	12.847***			
	우리 지역에서 계속 거주 기대(다음 세대)	.849	11.632***			

\*p<.05, \*\*p<.01, \*\*\*p<.001

2)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은 관측변수가 특정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관계에 초점을 둔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분석 단계에서 조절변수를 제외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만을 투입하였다. 이는 확인적 요인분석의 목적이 잠재변수의 측정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인 반면, 조절변수는 변수 간 인과관계의 조건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Baron & Kenny, 1986), 측정모형 단계에서 다루어야 할 구성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주요 인과 관계를 구성하는 변수 중심으로 측정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표 4〉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 및 판별타당도 분석

구분	사회문화	경제	안전	정주
사회문화	0.597			
경제	0.497** (0.247)	0.734		
안전	0.310** (0.096)	0.291** (0.085)	0.829	
정주의식	0.612** (0.375)	0.533** (0.284)	0.486** (0.236)	0.659

\*\*p<.01 괄호 안 숫자는 결정계수. 대각선의 굵은 글씨는 평균분산추출(AVE)

### 3. 가설검증

#### 1) 정주환경 인식과 정주의식 간 영향 관계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chi^2=201.635(df=116, p<.001)$ ,  $CMIN/df=1.738$ ,  $CFI=0.970$ ,  $NFI=0.934$ ,  $IFI=0.971$ ,  $TLI=0.961$ ,  $RMSEA=0.058$ 로 도출되어 모든 적합도 지수가 기준치를 충족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사회문화 인식과 경제, 안전 인식 모두 정주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H1-1, H1-2, H1-3이 모두 채택되었다. 이 결과는 정주환경 인식이 정주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주장(강영웅 외, 2020; 이희창 외, 2004; 최재국·문국경, 2021)과 일치한다.

〈표 5〉 정주환경 인식이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분석

	경로분석 결과	표준화계수	t-value	가설검증
H1-1	사회·문화 인식 → 정주의식	0.432	6.026***	채택
H1-2	경제 인식 → 정주의식	0.298	4.607***	채택
H1-3	안전 인식 → 정주의식	0.228	3.687***	채택

\*p<.05, \*\*p<.01, \*\*\*p<.001

주목할 점은 세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영향력의 크기에는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문화·여가·의료·교육 등 다면적 측면을 포괄하는 사회·문화 인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 인식과 안전 인식 순이었다. 이는 청년들이 지역을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삶의 질을 담보하는 생활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오랫동안 한국 청년정책의 중심을 이루어 온 경제적 유인 중심의 정주담론과 중요한 차이를 보여준다. 기존 정책은 지역정착을 주로 고용기회와 주거 안정성의 문제로 간주하며, 정주의식을 개인의 경제적 계산에 따른 선택으로 해석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회·문화 인식이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청년의 지역정주가 관계, 경험, 정체성 등 사회·문화적 의미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즉, 청년의 정주 결정은 경제적 조건의 충족보다 지역이 제공하는 문화적 경험, 공동체적 연결감, 일상생활의 질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복합적 과정이다. 이는 기존의 경제주의적 정주담론이 청년세대의 실제 의미세계와 괴리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며, 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 지역정책 담론의 재구성을 요구한다.

## 2) 지역사회유대감의 조절효과

지역사회유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시행하였다. 먼저 지역사회유대의 평균값(2.43)과 신뢰도( $\alpha=0.757$ )를 확인한 후, 이를 기준으로 고·저 집단을 구분하여 정주환경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표 6〉 참조). 그 결과, 지역사회유대가 높은 집단이 사회·문화 및 경제 여건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나, 안전 인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지역사회유대 고·저집단 간 정주환경 인식의 차이검정(t-test)

정주 환경	집단유형(N)	Levene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test				
		통계량	p-value	평균	평균차	표준오차 차이	통계량	p-value
사회·문화	고집단(N=102)	0.095	0.758	3.19	0.28	0.087	3.243	0.001
	저집단(N=122)			2.91				
경제	고집단(N=102)	0.381	0.538	2.84	0.21	0.102	2.070	0.040
	저집단(N=122)			2.63				
안전	고집단(N=102)	1.339	0.248	3.69	0.18	0.095	1.835	0.068
	저집단(N=122)			3.51				

\* $p<.05$ , \*\* $p<.01$ , \*\*\* $p<.001$

측정도구의 동일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형태동질성(configural invariance)과 측정동질성(metric invariance)검정을 실시하였다. 절편동질성은 잠재평균 비교 시 필요하지만, 본 연구는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차이(조절효과)검정을 목적으로 하므로 측정동질성 수준에서 분

석을 진행하였다(Byrne, 2016). 검정 결과, 측정모형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두 집단 간 비교가 가능하였다(표 7) 참조.

〈표 7〉 측정모형의 동질성 검정

적합도 지수	$\chi^2$	df	CMIN/df	CFI	NFI	IFI	TLI	RMSEA
형태 동질성	423.882	252	1.682	0.942	0.870	0.943	0.929	0.055
측정 동질성	442.188	256	1.727	0.937	0.864	0.938	0.925	0.057
기준			$\leq 3$	$\geq .9$	$\geq .9$	$\geq .9$	$\geq .9$	$\leq .08$

\* $p < .05$ , \*\* $p < .01$ , \*\*\* $p < .001$

다음으로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MCFA: Multi Group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결과, 자유모형과 제약모형 간  $\chi^2$  차이가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 $\Delta df=14$ ,  $\Delta \chi^2=12.511$ ,  $p=0.566$ ). 이는 두 집단 간 측정가중치가 동일하다는 제약을 두더라도 모형의 적합도가 악화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신건권, 2016: 470), 지역사회유대의 고·저 두 집단 간 교차타당성(cross validity)이 확보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표 8) 참조.

〈표 8〉 지역사회유대 고·저집단 간 교차타당성 분석(MCFA)

구분	자유모형	제약모형(구조가중치모형)
$\chi^2$	411.371(df=252)	423.882(df=238)
$\chi^2$ 차이	12.511	
$\chi^2$ 차이의 p-value	0.566	

\* $p < .05$ , \*\* $p < .01$ , \*\*\* $p < .001$

마지막으로 다중집단 경로분석(MSEM: Multi 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결과(표 9) 참조), 경제 인식과 정주의식 간 경로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Delta \chi^2(1)=13.415^{***}$   $>$   $\Delta \chi^2(1)=3.84$ ,  $df=1$ ,  $p < .001$ ). 지역사회유대가 낮은 집단에서만 경제 인식이 정주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유대가 높은 집단에서는 그 영향이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유대가 약한 주민은 거주지 선택 시 경제적 조건에 크게 의존하는 반면, 유대가 강한 주민에게는 강한 유대감 그 자체가 경제적 조건의 영향을 상쇄할 만큼 중요한 정주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Hirschman(1972)의 충성심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는 조직에 대한 강한 유대가 불만족 상황에서도 이탈을 억제하는 완충 역할을 한다고 보았는데, 본 연구는 이 메커니즘이 지역 차원에서도 작동함을 보여준다. 정영아·김윤지(2022) 역시 지역사회유대가 기대불일치와 거주기간 사이의 부정적 관계를 완화한다는 점을 발견한 바 있다. 이는 ‘여기가

내 고향이고, 내가 속한 곳'이라는 정서적 기반이 경제적 합리성을 넘어서는 정주 동기로 기능함을 의미한다. 단순히 '떠날 기회가 없어서' 남는 것이 아니라 '머무를 이유'가 존재할 때 정주의식이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도 일자리나 GRDP와 같은 거시경제지표 개선은 장기간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반면, 지역사회유대 강화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 중소도시에서 보완적 접근으로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지역사회유대 역시 단기간에 형성되기 어려운 사회적 자본이므로, 주민 네트워크 활성화와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표 9〉 지역사회유대 고·저집단 간 다중집단 경로분석(MSEM)

경로	지역사회유대감 저집단		지역사회유대감 고집단		자유모델 $\chi^2(256)=$ 439.627	제약모델 $\chi^2(257)=$ 442.283
	표준화계수	t-value	표준화계수	t-value		
사회·문화 인식 → 정주의식	0.306	3.310***	0.569	4.698***	$\chi^2(256)=$ 439.627	$\chi^2(257)=$ 442.283
Chi-square difference test: $\Delta\chi^2(1)=2.657, p > .05$						
경제 인식 → 정주의식	0.529	5.340***	0.042	0.425	$\chi^2(256)=$ 439.627	$\chi^2(257)=$ 453.041
Chi-square difference test: $\Delta\chi^2(1)=13.415, p < .001$						

\* $p < .05$ , \*\* $p < .01$ , \*\*\* $p < .001$

한편, 사회·문화 인식과 정주의식 간 경로에서는  $\chi^2$ 변화량이 유의하지 않아( $\Delta\chi^2(1)=2.657 < \Delta\chi^2(1)=3.84, df=1, p > .05$ ) 통계적으로 조절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별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유대가 낮은 집단( $\beta=0.306^{***}$ )과 높은 집단( $\beta=0.569^{***}$ )간 0.263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단일집단 분석 결과( $\beta=0.432^{***}$ )와 차별되는 결과로, 지역사회유대 수준에 따라 사회·문화 인식의 영향력이 달라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회적 관계망은 주민이 지역 환경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James, 2004; Putnam, 1993). 실제로 지역사회유대가 약한 주민에게 사회·문화 환경은 '있으면 좋은' 부가적 요소일 수 있다. 예컨대 새로운 도서관이나 문화행사가 생겨도 어울려서 이용할 사람이 적고, 자신의 일상과 연결되기도 쉽지 않다. 반면 지역사회유대가 높은 주민에게 사회·문화 환경은 관계가 실현되는 장소다. 문화공간은 이웃과 함께 이용하는 '우리의 공간'이 되고, 지역 행사는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우리 동네에 좋은 시설이 생겼다'라는 자긍심으로 이어지며, 정주의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경험될 때 그 의미와 가치가 증폭되는 것이다. 이처럼 동일한 사회·문화 환경

개선 정책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지역사회유대 수준에 따라 정주의식 증진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다만, 이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향후 표본 규모 확대와 측정항목 보강을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는 지역사회유대가 정주환경 인식과 정주의식 간 영향을 조절하는 심리적 기제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특히 경제 인식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사회·문화 인식의 긍정적 효과를 증폭시킬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유대는 단순한 정서적 요인을 넘어 지역 정주정책의 전략적 변수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 V. 결론 및 제언

청년이 지역에 남는 이유, 환경인가 관계인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청년의 지역 정착은 지방도시 생존의 핵심 과제이다. 본 연구는 정주환경 인식이 청년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사회유대의 조절효과를 규명하였다.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1. 학술적 시사점

첫째, 본 연구는 정주의식 개념을 단순히 현재의 정주의사로 한정하지 않고, 향후 지속 거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포괄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정주의식을 현재 시점의 정착 의사로만 접근한 정태적 한계를 보완하고,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시간적 연속성을 가진 복합적 개념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갖는다.

둘째, 기존 연구가 정주환경 인식과 정주의식의 직접적 영향에 주목했다면, 본 연구는 지역 사회유대의 조절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정주의식 형성 메커니즘을 정교화했다. 특히 정주환경 인식의 영향이 사회적 유대 수준에 따라 증폭되거나 완화될 수 있음을 입증하여, 정주의식의 통합적 이해를 위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셋째, 분석방법 측면에서도 잠재변수 기반의 구조방정식모델링(SEM)을 적용하여 추정의 정확성을 높였다. 기존의 관측변수 기반 경로분석이 측정오차 통제 및 개념의 복합적 특성 반영에 한계가 있는 반면(배병렬, 2014), SEM은 측정오차를 분리하여 개념 간 순수한 관계를 추정하고, 복수의 지표로 잠재변수를 구성함으로써 정주의식의 다차원적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경로분석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 2 정책적 시사점

### 1) 일자리 중심에서 가구 단위 정주 여건으로

첫째, 청년정책의 초점을 개인의 일자리에서 가구 단위의 정주 여건 조성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청년의 이주 및 정주 결정에는 경제 요인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분석 결과 김해시 청년의 정주의식에는 사회문화적 인식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여가·취미, 교육, 환경 대응, 문화·예술 향유, 의료·보건 서비스 제공과 같은 항목들이 정주의식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은, 청년층이 단순한 경제 조건을 넘어 지역에서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일자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청년층이 유입되더라도 결혼·출산·자녀 교육 단계에서 다시 수도권 및 대도시로 재이동하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경향신문, 2021. 10. 21.). 이는 생애주기별로 요구되는 교육·보육·의료·문화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을 때 청년층의 정주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해시는 부산·창원 등 대도시 통근권 입지와 제조업 기반 강소기업 등의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청년층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문화 생활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년 개인의 문화·여가 향유 기회 확대, 청년 가구의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전 생애에 걸친 의료·보건 서비스 접근성 강화 등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경제적 기반과 생활 인프라가 균형을 이룰 때, 김해시는 ‘일하러 오는 곳’이 아닌 ‘살고 싶은 곳’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 2) ‘관계기업’ 모델의 도입

둘째, 청년 인력 수요 창출의 대안으로 ‘관계기업(Relational Enterprise)’ 모델을 제안한다. 분석 결과 경제 인식이 사회문화 인식 다음으로 정주의식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김해는 부산·창원과 인접한 산업도시로서 일자리 접근성이 양호하고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 비중이 높지만, 청년층의 기대를 충족하는 일자리의 질적 수준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대기업의 본사 이전이 어려운 현실에서 관계기업 모델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관계기업은 기업이 본사 이전 없이 위성오피스, 위케이션 거점, 청년센터 등을 통해 지역과 지속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형태로,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자산, 인적자원 등을 활용한 프로젝트 수행, 지역 인재 육성, 지역 산업과의 협업 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지역성 기

반 브랜드 강화를, 청년은 지역 내 경력 개발 기회를, 지역은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3자 상생을 실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위성오피스나 워케이션 거점 설치를 위한 공간 인프라를 조성하고 인허가 및 세제 혜택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지역 청년을 채용하거나 협업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 사업비 지원, 세액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실질적 청년 인력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셋째, 생활인구 정책과 연계하여 코워킹 스페이스, 숙박시설, 문화·여가시설 등 원격근무 인프라를 확충하고, 일시적·순환적 체류자가 지역 경제와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관계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청년의 정착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 3) 지역착근형 청년학교로의 전환

셋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청년학교’를 ‘지역착근형(Local Embedded) 청년학교’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조절효과 분석 결과 지역사회유대가 높은 집단에서는 경제 인식이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지역사회유대가 경제 조건의 영향력을 완화할 수 있는 핵심 기제임을 의미하며, 단기 개선이 어려운 경제 환경의 한계를 지역사회유대 강화로 보완함으로써 청년 정주를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인구감소 시대에 청년세대 유입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면서 각 지자체는 청년을 지역사회의 중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청년네트워크는 전체 243개 지자체 중 153개(63%) 지역에서, 청년센터는 185개(76%) 지역에서 각각 운영되고 있다(김성아 외, 2023). 그러나 이러한 청년정책이 일회성 지원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인 정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지역사회와 실질적인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이 필요하다.

청년학교는 이러한 맥락에서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모여 학습하고 교류하는 청년학교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청년 간, 그리고 청년과 지역 사회 간 관계 형성의 장으로 기능한다. 특히 지역 현안 프로젝트 및 지역기업 및 주민과의 협업 과제를 포함시킨다면, 청년들은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와 애착을 높이고 경제적 여건을 넘어서는 사회적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 특히 타지역 이주민 비중이 높은 김해시의 경우, 지역착근형 청년학교는 지역 출신 청년과 이주 청년이 공동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상호작용하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양 집단 간 유대감 형성을 촉진하고, 이주 청년의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다.

#### 4) 청년 참여형 지역 안전 정책

넷째, 청년이 지역 안전 정책의 공동 설계자(co-designer)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김해시는 2020년 국제안전도시 공인 이후 지역안전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연합뉴스, 2025. 9. 28.), 도농복합도시 특성상 지역별로 상이한 안전 취약성이 상존한다. 구도심은 노후 건축물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범죄 및 재난 취약성이 높고, 농촌 지역은 교통 접근성 한계로 생활 안전 측면의 불편이 크다(영남매일, 2025. 1. 2.). 실제로 중소도시 청년들은 이러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대도시 거주 청년보다 지역 안전 수준을 낮게 인식하고 있다(민보경, 2024).

문제는 청년의 정주 결정에는 객관적 안전 수준만큼이나 체감 안전도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안전 정책 추진과 함께 청년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당사자 의식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청년 안전 리빙랩을 통해 범죄·재난 취약지역을 직접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고, 청년 안전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여 정책 수립 단계부터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민관 협력으로 제안이 실행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참여형 안전 정책은 청년의 생활 경험에 기반한 맞춤형 안전망을 구축하여 체감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문제 해결 과정에서 형성되는 당사자 의식과 지역 애착을 통해 정주의식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청년의 지역 정주가 경제적·물리적 조건을 넘어 지역사회 관계망 및 정서적 결속에 좌우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사회유대는 경제 인식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고 사회문화 인식의 긍정적 효과를 강화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하였다. 이는 청년 정주정책이 물리적 여건 개선과 더불어 관계망 형성을 핵심 목표로 포괄해야 함을 시사하며, 이러한 접근은 청년 정주를 넘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김해시라는 단일 지역이 분석 대상이라는 점에서 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지역 비교를 통해 다양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표본을 확보하고 외적 타당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주환경 인식을 단순한 만족도로만 측정할 경우, 청년의 규범적 기대 수준이나 상대적 인식 격차를 포착하기 어렵다. 특히, 인근 대도시와의 비교를 통해 형성되는 상대적 박탈감·우월감은 정주 결정의 핵심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비교 인식 요인을 포함한 다차원적 측정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강길주. (2025). 「김해시 미래 인구 변화와 시사점」. 김해연구원.
- 강대선·류기형. (2007).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기반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응집력과 지역사회참여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9(1): 27-53.
- 강수진·서원석. (2025). 청년의 지방 정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박탈감 요인: 지방 거주 경험 별 실증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7((2): 63-80.
- 강영웅·이승중·이혜림. (2020). 지방공공서비스가 육구충족 집단별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54(3): 107-140.
- 경향신문. (2021. 10. 21.). 「혁신도시, 가족 동반 이주율 낮아 8곳은 인구 계획 목표 못 채웠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110212151035>
- 곽현근·유현숙. (2005). 지역사회 주민조직 참여의 영향요인과 집합적 효능감: 충북 청원군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1): 347-376.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 <https://www.law.go.kr/main.html>
- 국립국어원. (2025).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 김상민·이성원. (2025). 인구감소시대 지역격차인식과 정주지속성: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의 결정요인 비교분석. 「지방행정연구」, 39(2): 159-198.
- 김성아·김지연·김문길·조성은·장세정·노혜진·이정민·강예은·장성현. (2023). 「청년정책 지원대상 연구: 취약청년과 지역 청년을 중심으로」.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화연·이대웅. (202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청년세대의 지방 정주의사 영향요인 연구: 청년정책과 생활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4(2): 261-288.
- 민보경. (2024). 「청년의 지역 거주의향과 삶의 만족도」. 국회미래연구원.
- 배병렬. (2014). 「Amos 21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 도서출판 청람.
- 보건복지부. (2025. 9. 22.).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발표」. 보도자료.
- 신건권. (2016). 「Amos 23 통계분석 따라하기」. 서울: 도서출판 청람.
- 엄창욱·노광욱·박상우. (2018). 지역청년의 정주 및 귀환 결정요인: 대구지역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6(3): 259-283.
- 연합뉴스. (2025. 9. 28.). 「김해시,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본 실사...생활 밀착형 정책 '긍정」. <https://www.yna.co.kr/view/AKR20250928044300052>
- 영남매일. (2025. 1. 2.). 「김해시 범죄분야 3년 연속 최저등급, 행안부 지역안전지수 발표」. <https://www.yn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24789>
- 오미영. (2008). 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 관계가 지역민의 지역사회유대, 지역사회 만족 그리고 거

- 주의향에 미치는 영향.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8(1): 327-350.
- 오정민. (2024). 빅데이터를 활용한 워케이션 트렌드 분석. 「여가학연구」, 22(3): 45-64.
- 이미애·이승중. (2016). 지역주민의 정주의식과 커뮤니티웰빙과의 관계: Kee 6자본 모형의 적용. 「한국정책학회보」, 25(2): 1-28.
- 이상호·오정민. (2016). 근대산업유산관광지 영도다리의 장소성 형성요인과 그 영향. 「관광연구」, 31(2): 343-361.
- 이지은·이경은. (2020). 주거환경만족도와 지역주민의 정주의도: 연령집단 간 비교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4(2): 57-86.
- 이지은·이승중·이혜림. (2020). 공공서비스 기대불일치가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시민참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1(1): 7-37.
- 이창관·박선주. (2024). 청년, 중장년, 노년층의 지역 계속거주의사 영향요인 분석: 자연환경, 안전,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6(1): 1-33.
- 이희창·박희봉·정우일. (2004).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3(3): 147-167.
- 전영옥·박세진. (2024). 생활환경 만족도가 계속 거주의사에 미치는 영향: 지역 만족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8(3): 173-190.
- 정영아·김유지. (2022). 지방정부서비스에 대한 기대불일치가 거주기간과 참여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유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6(2): 331-358.
- 정진경·김유나·구지윤. (2022). 자원봉사와 지역사회 준비도의 관계에서 지역사회 리더십과 지역사회 유대감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4(2): 155-181.
- 조선일보. (2025. 5. 5.). 「'청년정책'은 필요 없습니다». <https://www.chosun.com/opinion/espresso/2025/05/05/3TZXQFOO6NFHNFHM6PSVYUSEF4/>
- 최예술. (2022).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화 실태와 유출인구 특성 분석. 「국토연구원 위킹페이퍼」, 22-06: 1-31. 세종: 국토연구원.
- 최열·임하경. (2005). 장소애착 인지 및 결정요인 분석. 「국토계획」, 40(2): 53-64.
- 최일진·남황우. (2015). 정주의식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전북 고창군을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8(3): 1-30.
- 최재국·문국경. (2021). 사회적 자본이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도시위험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3(3): 77-95.
- 하수정·김은란·이차희·이종표·심혜민. (2022).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문화·보건·교육」. 국토연구원.
- 한국은행 경기본부. (2025. 1. 23.). 「경기지역 청년층의 "계속거주" 결정요인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도자료.
- Amerigo, M., & Aragonés, J. I. (1997). A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pproach to the study of residential satisfaction.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 17(1): 47-57.
- An, S., Aoki, T., & Suzuki, A. (2021). Why people settle in shrinking communities: A unified framework of psychological, environmental, and cognitive factors. *Sustainability*, 13(24): 13944.. <https://doi.org/10.3390/su132413944>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 Byrne, B. M. (2016).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Basic concepts,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vol. 3). Routledge.
- Carling, J. (2024). Why do people migrate? Fresh takes on the foundational question of migration studi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58(4): 1757-1791.
- Chen, N., Hall, C. M., Yu, K., & Qian, C. (2019). Environmental satisfaction, residential satisfaction, and place attachment: The cases of long-term residents in rural and urban areas in China. *Sustainability*, 11(22): 6439.
- De Haas, H. (2021). A theory of migration: the aspirations-capabilities framework. *Comparative migration studies*, 9(1): 8.
- Davidson, W. B., & Cotte, P. R. (1989). Sense of communit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7(2): 119-125
- Engel, J. F., Blackwell, R. D., & Miniard, P. W. (1986). *Consumer Behavior*(vol. 5). New York: Dryden Press.
- Goudy, W. J. (1977). Evaluations of local attributes and community satisfaction in small towns. *Rural Sociology*, 42(3): 371
- Greenwood, M. J. (1975). Research on internal migration in the United States: A surv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97-433.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2010). *Multivariate Data Analysis*(vol. 7). New Jersey.
- Harris, J. R., & Todaro, M. P. (1970). Migration, unemployment and development: a two-sector analysi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60(1): 126-142.
- Hatton, T. J., & Williamson, J. G. (1998). *The age of mass migration: Causes and economic impact*. Oxford University Press.
- Hernandez, B., Hidalgo, M. C., Salazar-Laplace, M. E., & Hess, S. (2007). Place attachment and place identity in natives and non-native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7(4): 310-319.
- Hirschman, A. O. (1972). *Exit, voice, and loyalty: Responses to decline in firms*,

- organizations, and states.* Harvard university press.
- Hofstede, H., Salemink, K., & Haartsen, T. (2023). Beyond the (im) mobility and social?environmental dichotomy: Young adults' motives to reside in rural northwest Europe. *Population, Space and Place*, 29(4): e32.
- James, B. (2004). Community attachment: Determinants, indicators and measures. *Center for Research, Evaluation and Social Assessment: Wellington, New Zealand*, 1-30.
- Kale, A. (2019). Building attachments to places of settlement: A holistic approach to refugee wellbeing in Nelson, Aotearoa New Zealand.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65: 101315.
- Lewicka, M. (2011). Place attachment: How far have we come in the last 40 year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1(3): 207-230.
- Li, Y., Yan, N., Cheng, H., Luo, J., & Zhou, Z. (2024). Hesitant or determined? The influence of 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on settlement decision-making of rural in-migrants: evidence from Dali, China.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s*, 11(1): 1-12.
- McMillan, D. W., & Chavis, D. M.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6-23.
- Mincer, J. (1978). Family migration decis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6(5): 749-773.
- Morris, T., Manley, D., & Sabel, C. E. (2018). Residential mobility: Towards progress in mobility health research. *Progress in Human Geography*, 42(1): 112-133.
- Putnam, R. D.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The American Prospect*, 4(13): 35-42.
- Stamm, K. R. (1985). *Newspaper use and community ties: Toward a dynamic theory.* Norwood, NJ: Ablex.
- Stamm, K. R., & Fortini-Campbell, L. (1983). The relationship of community ties to newspaper use.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Monographs*, 84.
- Tiebout, C. (1956).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5): 416-424.
- Tuan, Y. F. (1977).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U of Minnesota Press.

---

**오 정 민:** 부산대학교에서 관광학 박사학위(논문명: 지방정부의 관광정책 확산에 관한 연구: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인제대학교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관광정책, 지방행정, 지역활성화 등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의료관광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분석: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융합관광콘텐츠연구, 2025),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케이션 트렌드 분석”(여가학연구, 2024), “도시재생 기반 관광 공간의 확산요인 분석: 정책확산이론을 중심으로”(관광학연구, 2023) 등이 있다(jmoh75@inje.ac.kr).

**이 상 협:** 2014년 영국 York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논문명: How Institutions Matter: Analysis of Restructuring the Employment System in South Korea)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인제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분야는 정치경제학이며 주로 자본주의 복지국가 및 지역 거버넌스가 관심분야다. 최근 논문으로는 “유네스코 학습도시 담론의 정치경제: 탈정치화와 학습의 물신화”(21세기정치학회, 2025), “한국 투표용지 디자인에 관한 실험 연구 -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한 문제제기-”(디자인융복합연구, 2018), “Old Boys or New kids in Town? The Legacies of the Developmental State in Korean Welfare Reforms”(Asian Studies Review, 2017) 등이 있다(ezr91@inje.ac.kr).